

2024 년 5 월 26 일 “(가족 4) 생명의 샘”(사 58:6-11)

폴 트루니에, ‘가정의 행복은 처음부터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매일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어떻게 나의 가족이 더 자유하며,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9 절)’

새번역: 멍에, 폭력, 폭언 → 개역개정: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로 번역.

멍에 -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상대를 컨트롤하는 것,

손가락질 - 스스로 의롭다고(옳다고)하는 자들이 무시하는 손짓. 판단과 비판이 개입된 행동.

허망한 말 -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는 말

손가락질을 멈추려면 주님이 내게 하시듯, 상대의 장점과 은사를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몇 주간 실천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말을 멈추려면 평상시 하는 말을 정리하며 기도와 묵상 시간을 통해 성찰할 때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이 말씀을 가정의 차원에서 볼 때, 내 가족의 굶주림을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굶주림은 표면에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인간은 인격적 문제의 핵이 되는 영적상처를 지닙니다. 이것은 어릴 적 당한 인격적 무시로 인한 상처입니다(브래드쇼).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내면이 왜곡되고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성경을 보면 인간의 결핍과 왜곡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누구라도 걸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가르쳐지고, 예수님에게서 확증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마 9:35-36). 다른 내면의 디테일들은 모르더라도 사람의 절실한 필요는 불쌍히 여김(=공휼, 자비)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영혼 구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삶에 풍성한 복(유업)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서로 불쌍히 여겨 필요와 그 이상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긍휼의 사람이 생명의 샘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1)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 캄캄한 밤이 대낮같이 되고,

(2) 주께서 인도하셔서 영혼을 채우시고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며, 물 댄 동산(끓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1) 빛은 상황과 사물을 환히 밝혀 실체가 어떠하며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동과 짐작과 더듬는 행위가 난무해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마치 적군의 기지에 조명탄을 쏘아 밝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행할 것에 대해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빛이 나타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향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난 일은 창조 첫 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친 사람은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합당하고 적격인 사람이 됩니다.

(2) 10 절은 삶의 활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댄 동산,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물 댄 동산은 에덴을 연상시킵니다(창 2 장). 그리고 네 강(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이 에덴을 지나갑니다. 아담이 가꾸고 지켜야 할 축복의 땅이었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에덴의 가치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긍휼이 회복되면 에덴의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동행, 영혼의 만족, 생명의 부요함, 참되고 아름답고 선함의 풍성함입니다.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에덴이 회복되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긍휼을 배우고 베풀어 생명의 샘이 되는 행복한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가족의 어떤 모습이 유독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2. 나의 빛이 삶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샘이 되기를 결단한 내용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